

재난·재해대응 지원체계 구축

무주군, 전북건설기계지부 무주지회·무주군중기협회와 재난관리자원 협약

무주군이 만일의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나섰다. 지난 9일에는 전북건설기계지부 무주지회(회장 권봉재, 이하 지회), 무주군중기협회(회장 김동훈, 이하 협회)와 재난관리자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신속한 재난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재해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체결한 것으로, 무주군과 '지회', 그리고 '협회'는 무주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무주군 지역에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 무주군이 '지회'와 '협회'에 장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지회'와 '협회'는 요청이 왔을 때 현장에 필요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에 따르면 전북건설기계지부 무주지회는 38명의 회원이 덤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주군중기협회는 64명의 회원이 굴삭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한 시가 급한 재난상황에서는 행정이 가진 인력과 장비로는 감당이 힘든 부분이 있다"며



무주군이 만일의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전북건설기계지부 무주지회, 무주군중기협회와 재난관리자원 협약을 체결했다.

"다양한 장비와 인력풀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만큼 든든하다"고 전했다. 이어 "집중호우와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전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는 협약 업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단체와도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재해·재난 시 활용도가 높은 덤프와 굴삭기를 보유한 단체들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은 물론, 대형화재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농기센터,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로컬푸드 판매 호박·부추 등 40품목 조사결과 '적합' 판정

진안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식)는 관내에서 생산되어 판매업체에 납품되는 유류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기술센터는 지난 11월 진안군로컬푸드(전주 호성점 위치)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40품목을 수거해 잔류농약 320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분석된 농산물 중 호박, 부추 등 17품목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이며, 양파, 애호박 등 23품목은 검출한계이하(불검출)로 나타나 수거된 농산물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0.01 mg/kg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농약사용에 대한 기준 및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로컬푸드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매월 1~2회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 및 직접 구매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정식 소장은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성 분석 업무를 확대하여 관내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진안군은 10일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군 실과소, 읍면장 등이 참석하여 용역 수행기관인 (재)한국지리경제연구원(대표 김학모)측의 진안군 관광 현황 분석, 용역 수행 방법 및 내용, 연구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보

고를 경청했다. 착수 보고 후에는 참석자들이 용역 수행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 등 용역 추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비대면 관광과 치유·힐링·건강 콘텐츠 개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진안 군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

략 수립의 필요성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이번 군의 수립용역은 순차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종합분석과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의 과제 수행과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진안군의 중장기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진안군재능기부자원봉사단은 10일 '2020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진안군재능기부자원봉사단 자원봉사대상 '행안부장관상'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주연) 진안군재능기부자원봉사단은 10일 '2020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재능기부자원봉사단은 진안군 DIY어르신봉사단·진안군전래놀이봉사단·진안군행복커퍼봉사단·진안군홍삼전행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2008년부터 구성되어 온갖 13년 동안 꾸준히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안군DIY어르신봉사단은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연방향제와 천연화장품 등 다양한 DIY체험교실을 운영, 관내 학교는 물론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청소년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 타 봉사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군전래놀이봉사단 역시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다양한 보수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래놀이 전문봉사활동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전문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안군행복커퍼봉사단은 단연 진안군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어르신 섬김봉사를 비롯한 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참여, 피로를 풀어주는 핸드드립 커피를 제공하며, 특히 먼민의 날에 찾아가는 핸드드립커피 봉사를 전개하여 전 군민이 행복해지는 하우하우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진안군홍삼전행봉사단 역시 제 몫을 톡톡히 해낸다. 이들은 찾아가는 행복 간식차량운영에 따른 각 면에서 운영될 홍삼전행 반죽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간식으로도 아주 효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재능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주연 센터장은 "재능기부자원봉사단은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센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재능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구강보건사업,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장수군이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은 구강질환에 노출이 되기 쉽고 구강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년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헬프사업'을 실시했다.

구강헬프사업은 경로당에 치솔거치대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접근하기 쉬운 양치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솔거치의 중요성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충치예방교실, 의치(틀니) 지원 사업, 경로당 대상 구강보건교육,

틀니사용 및 관리법,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입체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강질환 예방 환경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바른 잇솔질 방법 및 불소효능에 대한 동영상 제작해 배포하는 등 비대면 교육에도 힘써왔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무주장학재단 통합·운영

무주지역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장학 활동을 펼쳐 온 동일한 성격의 장학재단이 통합·운영에 들어간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과 무주군장학재단(이사장 이상갑)은 10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황인홍 군수와 이상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재단 통합·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장학재단은 올 12월까지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재산을 귀속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으로 운영된다.

황인홍 이사장은 "통합재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장학 사업을 펼쳐 지역인재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장학재단 이사장 이상갑은 "양 재단의 통합소식을 알리게 돼 기쁘고 통합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황인홍 군수와 이사진들께 감사드린다"며 "통합을 통해 지역인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사과재배 농업인 간담회

장수군은 9~10일까지 군민회관에서 장영수 군수, 사과재배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장수사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19년 간담회에서 건의한 안전에 대한 추진 경우 보고,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 및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토의와 과원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방안 모색,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사과재배 농업인은 사과산업 발전과 장수사과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장수사과 유통을 위한 APC활성화, 홍보강화, 노후 과원 정비(폐원) 지원 사업, 신규 과원 조성사업 병행,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한 농약 병 회수 및 반사필름 수거 등을 건의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